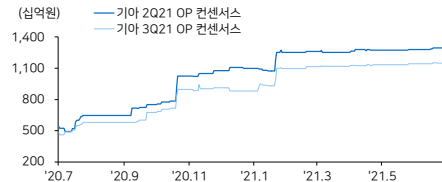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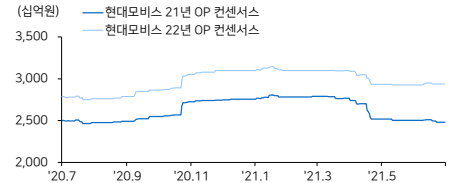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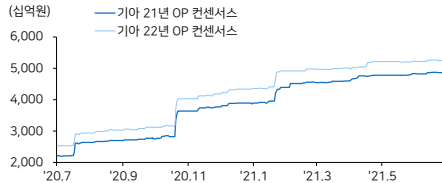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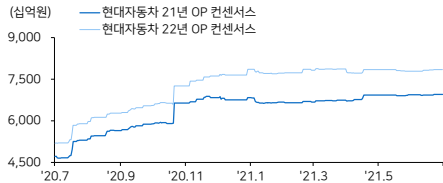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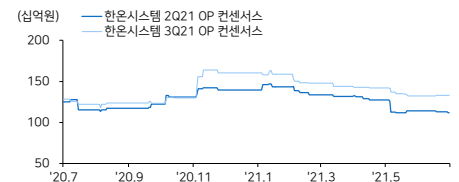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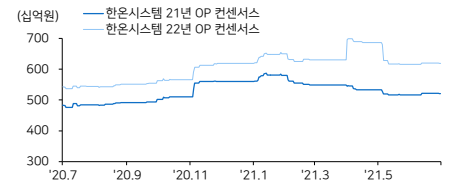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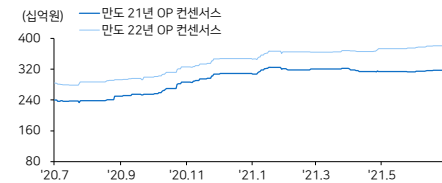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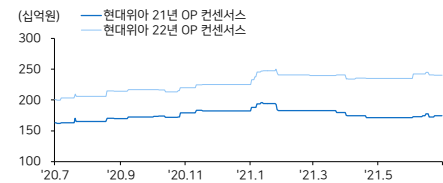


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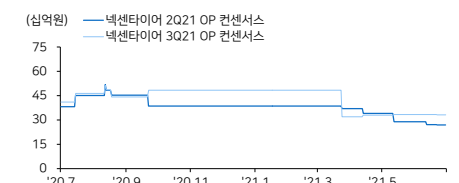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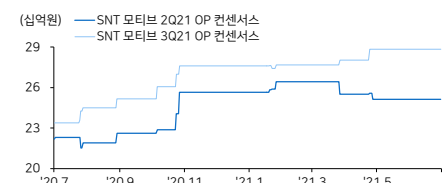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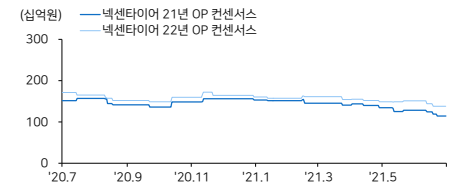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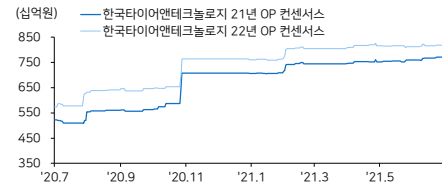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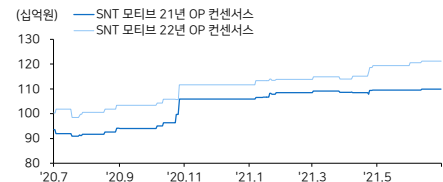
현대차 / 기아차 / 현대모비스



현대위아 / 만도 / 한온시스템



S&T모티브 / 한국타이어 / 넥센타이어



자료: Bloomberg,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

국내외 주요 뉴스

현대차, 2040년 핵심시장서 100% 전기차 전환...페배터리 활용도 확대 (아주경제)

현대자동차가 2040년까지 핵심 시장에서 100% 전기차 전환을 꾀함. 이를 통해 글로벌 전기차 시장 점유율 8~10%를 달성한다는 목표. 또 전기차 판매량 증가에 비례해 늘어나는 페배터리를 재활용하는 데도 힘을 쏟을 예정.

<https://bit.ly/3qQNWD9>

현대차, 구글과 결별... '독자 OS' 시장 주도 (전자신문)

현대차는 지난해 제네시스 일부 차종에 자체 OS를 처음 적용한 데 이어 내년부터 그룹 전체로 확대, 외부 의존도를 100% 줄임. 새 OS는 우선 현대차·기아의 표준형 6세대 '오디오·비디오·내비게이션'(AVN)에 적용될 예정.

<https://bit.ly/3ApKXWK>

美 민주당, 10년 전 실패했던 기후법안 재추진 (연합뉴스)

미국 민주당이 지난 2009년 추진했던 기후법안을 다시 꺼내 들고 있다고 WSJ가 5일 보도함. 당시 민주당은 탄소배출권 거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하원에서 통과시켰으나 상원을 통과하지 못해 무산되었던 바 있음.

<https://bit.ly/36h8ZNG>

"중국 6월 신차 판매 192만대...전년비 16.3% 감소" (뉴스1)

중국자동차공업협회(CAAM)는 6월 중국의 신차 판매량이 192.6만대로 YoY -14.9%, MoM -9.5% 감소했다고 전함. 2020년 봄 이후 수요회복이 이어진 가운데 반도체 부족이 생산에 영향을 미쳐 판매량의 감소로 이어진 것.

<https://bit.ly/3woH2yy>

"신차값보다 비싸"...美서 400만원 더 줘야 사는 국산차 (한국경제)

6월 미 자동차 판매사이트 아이씨카스에 따르면 지난달 기아 텔루라이드는 신차 가격이(4만4166달러)보다 중고차가 8.1% 비싼 4만7730달러에 거래됨. 쏘나타 중고차 가격은 올해 초보다 46% 상승한 18,600달러에 거래됨.

<https://bit.ly/3xo5tz8>

EV6 나온다...기아, 15일부터 양산 돌림 (파이낸셜뉴스)

기아의 첫 전용전기차 EV6가 오는 15일 양산에 돌림. 지난 3월말 공개후 4개월만으로 3만명이 넘는 사전예약자들이 이달 말부터 EV6를 인도 받을 것으로 전망됨. 이달 2,000대 생산, 8월부터는 매월 7,000대 이상 생산할 계획.

<https://bit.ly/3dMEBHV>

부가티, 최고급 전기 하이퍼카 개발한다...포르세·리막, 합작사 설립 (조선비즈)

포르세는 6일 리막과 합작사 '부가티-리막'을 설립하는 데 합의함. 새로운 합작사에서 부가티와 리막은 하이퍼카 모델 '부가티 시론'과 전기차 '리막 네베라'를 생산할 예정. 리막은 부가티-리막의 지분 55%, 포르세는 45%를 각각 보유.

<https://bit.ly/3HhAygq>

BMW, 전기차 'iX' 양산 시작...주행거리 630km (THE GURU)

BMW그룹이 반도체 부족에도 불구하고, 전기차 iX의 양산을 시작함. 배터리는 111.5kWh와 76.6kWh 등 총 두 가지로 구성됐으며, 1회 충전 시 주행거리(WLTP 기준)는 각각 최대 630km, 425km.

<https://bit.ly/3qXxbX5>

Compliance Notice

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.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%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.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.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.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.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, 대여, 배포 될 수 없습니다.